

## 캄보디아의 정치적 파벌과 민주화 과정\*

박성관\*\*

### I. 서론: 문제제기와 연구배경

일반적으로 민주주의(democracy)라 함은 하나의 가치정향적 용어이므로 학자들에 따라서 그 개념적 정의를 달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는 민주주의의 개념에 대한 주요한 논의들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다음과 같은 정의를 참고로 하고자 하며, 이는 세 가지의 기본적인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일종의 정치체제를 의미한다. 첫째, 정기적이고 비폭력적인 방법에 의해서 정부권력의 모든 실질적 지위를 위한 개인 및 집단들(특히, 정당) 간의 포괄적이고 의미있는 경쟁; 둘째, 정기적이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주요 사회집단들이 배제되지 않은 정책결정과 지도자 선출에 있어서 정치참여의 높은 포용수준; 셋째, 완전한 정치적 경쟁과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표현, 출판, 집회, 결사 등에서의 시민적, 정치적 자유의 수준(Diamond, Linz, Lipset 1990: 6-7).

---

\* 본 연구는 2002학년도 경남대학교 학술논문게재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필자는 본 논문에 대해 격려와 유익한 논평을 해 주신 익명의 세 분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경남대학교 법정대학 정치언론학부 부교수. [sungkp@kyungnam.ac.kr](mailto:sungkp@kyungnam.ac.kr)

그리고 민주화(democratization)는 바로 이러한 민주주의의 조건들을 충족시켜 가는 일련의 과정을 지칭하는 것이다. 헌팅톤(Huntington)에 의하면, 이 과정은 세 단계로 단순화시킬 수 있는데, 권위주의정권의 종말, 민주정권의 성립, 민주정권의 안정화라는 단계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완성시켜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Huntington 1991: 35).

이러한 맥락에서, 1953년 독립 이후 최초로, 국제사회의 개입에 의해 1993년과 1998년 민주적 자유 총선거라는 민주화의 한 조건을 이행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sup>1)</sup>의 민주화는 아직 불완전하며 불안정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는 최근의 정치적·사회적 불안정에서도 잘 반영되고 있는 바, 구 시대의 권위주의체제로의 복귀 가능성도 항상 상존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sup>2)</sup> 그러면 왜 캄보디아에서는 민주적 절차와 안정성이 불안하게 전개되고 있는가? 과연 어떤 요인이 캄보디아 민주화를 결정짓고 있는가?

캄보디아는 지정학적 측면에서 전통적으로 캄보디아와 라오스를 포함하는 인도차이나연방국가를 주창하여 왔던 베트남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발전하여 온 국가이다. 상대적으로 약소국가인 캄보디아는 허약한 정부구조 및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인도차이나지역에서의 갈등은 캄보디아로 하여금 외세의 침투에 더욱 취약하게 만들었으며, 이러한 대내

- 1) 1953년 독립 이후의 캄보디아는 각 정권들에 의해 다양한 국명이 사용되어졌다: 1953-1970, 시하누크(Prince Norodom Sihanouk)국왕의 캄보디아왕국(Kingdom of Cambodia); 1970-1975, 론놀(Lon Nol)의 크메르공화국(Khmer Republic); 1975-1979, 폴팟(Pol Pot)의 민주캄푸치아(Democratic Kampuchea); 1979-1989, 헝삼린(Heng Samrin)과 훈센(Hun Sen)의 캄푸치아 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Kampuchea); 1989-1991, 훈센의 캄보디아(State of Cambodia); 1992-현재: 시하누크의 캄보디아왕국(Kingdom of Cambodia).
- 2) 1993년 새 정권 수립 이후 캄보디아의 실질적인 두 지도자들인 현 국회의장 노로돔 라나리드(Prince Norodom Ranariddh)와 현 수상 훈센(Hun Sen) 간의 갈등이 심각하게 내재되어 있다. 예를 들면, 1997년 7월 당시 제1총리였던 라나리드의 외유를 틈 탄 제2총리였던 훈센의 쿠데타로 인해 연합정권이 와해된 바 있으며, 현재는 모든 행정부의 업무를 두 세력이 권력을 분할하여 담당하고 있다.

외적 요인과 상황은 결국 캄보디아의 민주화를 사실상 저해시켜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독립 이후 역대 캄보디아 정권들은 민주화보다는 우선적으로 국가생존의 전략에 가장 큰 역점을 두어 왔다. 시하누크국왕은 국가독립과 생존을 위해 권위주의적 리더십에 의존하였고, 1970년 시하누크정권 붕괴 이후의 각 정권들도 자신들의 상황적 판단에 의한 지배엘리트의 이익만 추구하였을 뿐 진정한 의미에서의 캄보디아의 민주화 발전에는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했던 것이다. 예를 들면, 론놀의 크메르공화국은 베트남의 침투와 캄보디아공산주의자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지원에 과도하게 의지하여 주변국가들의 경계를 더욱 촉발시켰으며, 폴팟정권은 베트남의 강력한 정치·군사력을 무시한 직접적 대응전략을 채택하여 과멸을 자초하였고, 그 후의 행삼린과 훈센정권은 자신들의 권력유지를 위해 캄보디아에 대한 베트남개입의 필요성을 수용하고 베트남과의 종속적 관계를 도모하였다. 따라서 1989년의 유엔(UN)의 캄보디아사태에 대한 개입 결정<sup>3)</sup> 이전의 캄보디아는 분명 독재와 권위주의 정치체제라고 하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었으며, 이는 1993년 유엔 감독 하의 자유선거라는 민주화의 한 조건을 이행한 이후 현재까지도 그 영향을 지속시키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캄보디아의 민주화는 휴전을 통한 각 파벌들의 캄보디아 정치발전을 위한 화합이라는 상징적 의미보다는 휴전까지의 각 파벌들 간에 존재했던 이질적인 정치적 정향(political orientation), 감정적 독립의 잔존, 외세의 개입에 의한 타율적 변화 등의 현실적 의미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캄보디아의 민주화과정과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 글에서는 국내세력과 국제세력의 연계성을 중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캄보디아 민주화의 한계와 불확실성을 수반하는 캄보디아 민주화의 정치적 역동성을 조명해 보는데 그 목적과 의의를 두고 있다. 이미

3) 1989년의 UN의 캄보디아사태 개입에 대한 의결은 찬성 124, 반대 17, 기권 12의 압도적 지지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은 Than(1991)을 참조.

인지되고 있듯이, 제3세계 국가들의 민주화 연구는 내적 요인뿐만 아니라 외세의 영향이라는 외적 요인에 대한 검증이 없이는 불완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글을 통해서, 캄보디아의 민주화 과정은 이러한 국내외의 복합적 요인이 주요 변수로 작용되어 오고 있는 적절한 사례임이 발견되어 질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의 많지 않은 국내외의 캄보디아 연구는 분석적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서술적 측면들을 더욱 많이 내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는 아마도 정확하고 다양한 자료획득의 어려움에 기인하고 있다 하겠는데, 세계은행 등에서 발간하는 자료에서조차도 캄보디아에 관한 신뢰성 있는 통계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데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도 기본적으로 캄보디아에 관한 자료 부족과 분석적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서술적 연구라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을 미리 밝혀 두고자 한다.

## II. 캄보디아 정치적 파벌의 발생과정

캄보디아에서는 독립 이후 이데올로기와 정책의 대립에 의한 다양한 파벌(faction)들이 생성·발전하였다. 캄보디아의 민주화는 결국 이러한 적대적 파벌들의 정치적 결합을 이룩한 하나의 정치적 결정체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글의 주요 변수인 이러한 다양한 파벌들의 존재와 활동 배경에 대해 선행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캄보디아의 다양한 파벌들의 발생은 역사적으로 내생적 요인뿐만 아니라 외생적 요인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 독립 이후의 캄보디아의 다양한 이해세력과 주변국들의 정치적 관계가 이 사실을 잘 뒷받침해주고 있다. 먼저, 독립 과정을 보면, 일본은 노로돔 시하누크(Norodom Sihanouk)<sup>4)</sup> 국왕<sup>4)</sup>의 친프랑스 성향으로 인해 손옥탄(Son Ngoc Thanh)<sup>5)</sup> 주도의 크메르 자유운동(Free Khmer Movement)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되었고, 시하누크의 기대와는 달리, 2차대

전에서 승리한 연합국의 프랑스는 캄보디아의 부분적인 독립만을 인정하게 되어 시하누크국왕은 민족중심의 독립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즉, 프랑스는 점진적인 방법에 의해 캄보디아의 독립과 자율성을 이양하려 하였고, 이에 반대하는 시하누크는 즉각적인 독립을 위해 보다 다원적인 독립운동을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시하누크는 서방 강대국들과의 우호적 협상이 필요했고, 미국측으로부터도 협조적 지원을 얻어 낼 수 있었다. 결국, 서방세력의 지원 속에, 군과 사법권 등을 확보한 시하누크는 1953년 11월 9일 그의 생일날을 독립기념일로 선포하고 실질적인 독립 캄보디아를 성취해 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2차 대전 이후 대다수의 제3세계 국가들의 독립과정이 그러하였듯이, 캄보디아의 독립과정에서도 국내세력과 국제세력이 상호 밀접한 연계성을 가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독립쟁취 이후 1970년까지는, 주변지역에서의 베트남전쟁과 같은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하누크는 상대적으로 다른 파벌들에 비해 그 권력의 지위를 성공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이에는 여러 가지의 요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시하누크의 리더십이 결정적인 작용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시하누크는, 1970년 권좌에서 축출되기까지, 민중사회정당(Sangkum Ryaster Niyum)을 창건하고 1955년 총선에서 82퍼센트의 높은 득표율을 획득할 수 있을 정도로 국내에서의 그의 권력지배와 인기는 절대적이었

- 
- 4) 1984년 공식적으로 캄보디아 식민지건설에 성공한 프랑스는 1941년 당시 19세의 어린 시하누크를 왕위에 올립하였다.
  - 5) 손옥탄은 크메르베트남계의 혈통으로서 남베트남(South Vietnam)에서 출생하고 프랑스 파리(Paris)에서 교육을 받았던 캄보디아 민족주의자였다. 귀국 후 국회도서관(National Library)에서 일하고 1936년 최초의 크메르語 신문 Nagaravatta(도시뉴스)를 창간하였으며 Pali 불교성전학자인 코언(Pach Chhoeun)과 함께 프놈펜불교연구소(Buddhist Institute of Phnom Penh)의 주역을 담당하기도 했다. 그후 프랑스의 탄압을 피해 일본으로 피난하고 일본통치하에서 자유크메르(Khmer Issarak)를 조직하여 反프랑스운동을 전개했다. 연합군과 프랑스군이 다시 집권함으로써 손은 결국 중형을 언도 받았으나, 여론에 힘입어 태국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기도 했다(SarDesai 1989: 190).

던 것이다. 국제적으로도 시하누크는 당시 캄보디아의 생존전략이었던 중립 노선을 통해서 전통적으로 캄보디아와 적대적 관계를 지속해 왔던 베트남과 태국을 적절히 견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하누크는 1960년대 중반부터 베트남전쟁에서 북베트남과 민족자유전선(National Liberation Front)이 우세해 짐에 따라 이후 친중국·친베트남의 친공산주의로의 정책 전환을 시도하게 되었다. 이는 이후, 1960년대 말까지 미국의 북베트남 폭격이 증대됨에 따라 호치민 세력이 캄보디아영토를 군사시설로 이용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해 주었고, 실질적으로 베트남과 중국공산주의자들이 캄보디아의 행정을 장악하게 되는 결과의 주요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한편, 캄보디아 공산주의자들인 크메르 루즈(Khmer Rouge) 또는 공산 크메르(Red Khmer)는 시하누크세력과 더불어 캄보디아의 최대 파벌 중 하나라고 지적할 수 있다. 1954년에 해체된 직후 초기에는 약 5,000명의 소위 하노이 크메르(Hanoi Khmer)가 북베트남으로 이동하는 등 크메르 루즈는 그 세력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었던 조직이었다. 그러나 크메르 루즈는 이엥사리(Ieng Sary)<sup>6)</sup>, 키우삼판(Khieu Samphan)<sup>7)</sup>, 호우윤(Hou Yuon), 그리고 살로스 사르(Saloth Sar)<sup>8)</sup> 등의 청년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재건되었으며, 이들은 1954년 제네바회의(Geneva Conference) 당시 독립과정에서의 그들 캄보디아 공산주의자들의 역할이 완전히 무시되었다는 이유로 철저하게 반(反)베트남 성향이었으며, 인도차이나공산당(ICP, Indochina Communist Party)과는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후, 새로이 전열을 정비한 크메르 루즈는 1960년대 말부터 베트남에 대해 우호적 선택을 하였던 시하누크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본격적인

6) 남베트남 출생으로서 폴팟과 고교동기와 동서지간의 밀접한 관계를 바탕으로 한 때 크메르 루즈정권 하에서 부총리, 외무장관을 역임한 크메르 루즈의 제2인자(Brother No. 2)로 군림하였던 인물이다(*Time* 96/08/26, pp. 12-14).

7) 키우삼판은 경제학 박사의 경제전문가로 알려진 크메르루즈의 최고지도자 중의 한 사람이었던 인물이다.

8) 살로스 사르는 이후 폴팟(Pol Pot 또는 Brother No. One)으로 더욱 알려졌다. 크메르 루즈의 지도부 인사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Barron and Paul(1977: 43-45) 참조.

게릴라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던 것이다(Shawcross 1979: 16, 236-239).

이러한 상황에서 크메르 루즈의 공세가 강화되자 정권 말기인 1969년 시하누크는 북베트남의 캄보디아영토에 대한 군사적 이용을 반대하고 반공주의자인 론놀(Lon Nol)장군을 수상으로 임명하는 등 친미노선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70년 시하누크의 해외순방은 결국 론놀과 시릭 마탁(Sirik Matak)이 이끈 쿠데타를 야기하였고, 이에 대해 미국정부는 국내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론놀 군사정권에 대한 군사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캄보디아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권력상황이 변하게 되자, 크메르 루즈 공산주의자들은 다시 친미반공의 론놀정권 타도를 위한 게릴라활동을 주도하였고, 사이공 함락 2주전에 론놀정권을 타도하고 국명을 캄보디아로부터 캄푸치아(DK, Democratic (Republic of) Kampuchea)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후 크메르 루즈 양대파벌인 폴팟, 키우삼판, 이엥사리 등이 이끄는 크메르 베티민(Khmer Vietminh)<sup>9)</sup>과 치아심(Chea Sim), 행삼린(Heng Samrin)등이 이끄는 하노이 크메르 외에도 시하누크와 같은 온건파 그리고 베트남팽창주의에 대한 경계론과 미국의 지원을 주장하는 비공산 민족주의자들이 가세하여 캄보디아는 더욱 복잡한 파벌대립의 형태로 발전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그 중에서 폴팟정권이 이끄는 크메르 베티민이 당시에는 가장 강력하였고, 이 파벌의 주도 하에 인류역사상 전례가 없었던 무자비한 인권탄압 정책이 실행되기도 하였다. 당시 프놈펜 등의 주요도시와 마을의 공무원, 교사, 불교인, 지식인을 포함하는 대다수의 캄보디아인들이 농업생산에 강제로 징용되었고, 캄보디아는 화폐통화의 중지, 주요기관들의 폐쇄, 외부세계와의 교류 차단이라는 극단적인 전체주의 경험을 당하였던 것이다. 이를 위해 크메르 베티민은 잔인하고 혹독한 수단을 사용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최소한 일백만 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Vickery 1984 Chapter 3).

9) 일반적으로 현재 크메르 루즈라 함은 이들 반베트남 마오이스트(Maoist) 공산주의자들인 크메르 베티민을 지칭하는 명칭이다.

크메르 루즈 정권의 주요 목표 중의 하나는 캄보디아 영토에 거주하는 베트남인들을 베트남영토로 추방하여 캄보디아에 대한 베트남의 영향력을 완전히 일소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크메르 루즈는 1977년 4월 베트남인들이 정착하고 있던 캄보디아·베트남 국경지역을 공격하였고, 베트남의 적대국이 된 중국과의 동맹관계를 모색하여 베트남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구사했다. 이에 대해 베트남은 1939년 프랑스통치 하에서 맺어진 소위 브레비선(Brevie Line)에 의해 결정된 캄보디아와의 해양국경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태국 만에 있는 캄보디아 도서들의 영유권을 주장했으며, 1976년 9월 캄보디아에서 쿠데타를 주도한 하노이 크메르 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반(反)크메르 루즈 전선을 구축하게 되었다. 베트남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캄보디아는 베트남이 반정부세력을 지원하여 소위 베트남주도의 인도차이나연방국을 건설하려는 베트남의 불순한 의도라고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다.

위와 같이, 독립 후의 캄보디아는 정책과 성격을 각기 달리하는 크메르 루즈, 하노이 크메르, 그리고 시하누크의 군주지파와 민족주의자 등 다양하고 복잡한 파벌 구조가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다.

### III. 캄보디아 민주화의 국제적 요인

캄보디아의 사회주의정권을 둘러싸고 베트남을 비롯한 중국과 소련(러시아)의 공산주의 세력들 간의 헤게모니장악을 위한 갈등은 캄보디아의 국내문제를 더욱 복잡하고 대립적으로 이끌었으며, 이는 또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가들과 이 지역에서의 안보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으로의 발전은 결국 캄보디아 사태의 해결 즉, 캄보디아의 민주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개입을 불러 일으키게 된 중요한 배경이 된 것이었다.

국제사회와 캄보디아와의 관계 중에서 역사적으로 베트남은 다른 국가들보



다 특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캄보디아와 베트남 간에는 전통적으로 갈등적 관계가 형성되어 왔는데, 이러한 두 국가들 간의 정치적 갈등은 1975년 이후에도 계속 동남아시아의 안보와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쳐 왔다. 예를 들면, 두 국가들의 공동국경선을 둘러싼 분쟁, 베트남전쟁 이후 캄보디아에 주둔하였던 70,000여명의 베트남병력을 둘러싼 갈등, 캄보디아의 영토권 주장에 대한 베트남의 강력 대응, 영해와 대륙붕의 중복을 둘러싼 마찰, 그리고 두 국가의 사회주의자들 간의 이질적인 이데올로기 노선 등은 양국으로 하여금 상호 갈등적 관계를 지속시키게 만든 주요한 요인들이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긴장관계는 국경선을 둘러싸고 급기야 전쟁의 형태로 발전하고자 말았는데, 1977년 4월 6개의 베트남군 사단병력이 캄보디아로 진격함에 따라 직접적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수주간 계속된 이 전쟁에서 8,000여명의 전사자들이 발생하였고, 이에 12월 캄보디아의 폴포트정권은 베트남과의 외교관계를 단절시키고 말았다. 그리고 1978년 1월 베트남은 군병력을 동원하여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 60km 이내로 진격하였으나 국제 여론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의 공격은 감행하지 않았다. 베트남은 국경선 지역으로 병력을 곧 철수시켰고,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기 위해 캄보디아 측에 회담을 제의하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들을 제안하였는데. 첫째, 각각의 국경선으로부터 반경 5km의 비무장지대(DMZ)의 설치; 둘째, 국경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상호존중 및 불간섭 조약의 체결; 셋째, 이를 위한 국제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이다(Research Institute for Peace and Security 1979: 104). 그러나 캄보디아는 회담을 거부하고 전쟁을 계속하였다. 1978년 4월 캄보디아는 베트남국경선 10km 이내로 진격하였으나, 결국 베트남의 대병력에 밀려 5월 16일 폴포트정권은 자신의 휴전제의를 제시하게 되었다. 이 제의를 통해 캄보디아는 베트남이 캄보디아의 독립과 영토의 인정 그리고 내정불간섭을 요구했고, 또한 베트남의 캄보디아를 포함하는 인도차이나 연방국가 설립 계획을 포기할 것을 주장했다(Research Institute for Peace and Security 1979: 104-105). 그 당시, 베트남은 이미 라오스(Laos)에 4개 사단병력을 투입하여 그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캄보디아와 더불어 호치민이 추구하여온 인도차이나 공산연방국가의 완성을 거의 실현시킬 수 있는 단계를 맞이하고 있었다(Research Institute for Peace and Security 1979: 104). 캄보디아정권은 이러한 베트남의 의도를 국내외의 반베트남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이용하였고, 폴포트정권은 베트남과의 중속적 관계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성을 여기에서 찾고자 하였던 것이다(Leifer 1980: 33).

결국, 베트남은 캄보디아의 제의를 거부하였고, 캄보디아군도 계속 국경선 주변에서의 공격활동을 계속하였다. 이와 같은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상호 강경입장은 소련과 중국이라는 사회주의 강대국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폴포트정권은 베트남공산당의 일원들이 그의 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쿠데타를 지속적으로 전개시키고 있는 점과 소련의 베트남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동남아에 대한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팽창주의정책을 강력히 비판하였다. 이미 베트남은 1978년 중반 소련 주도하의 코메콘(COMECON)에 가입하였었고 소련과 25년 기간의 우호 및 상호원조 조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캄보디아도 실질적으로 소련의 팽창주의를 견제하려는 중국으로부터 군사지원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다(Kroef 1979: 83-94). 이러한 베트남과 소련의 밀착관계에 대해 중국은 1978년 7월 베트남에 대한 모든 경제, 군사, 기술원조를 중단하고 중국에서 파견한 전문가들을 철수시켰다. 중국은 소련과 베트남의 우호관계는 중국포위전략이라고 비난하고 베트남을 소련의 위성국가라고 규정하였던 것이다.

여러 차례의 대대적인 군사작전이 문제해결에 실패한 후, 베트남은 보다 공세적 군사전략에 의한 폴포트정권의 전복을 시도하게 되었다. 소련의 지원을 얻게 된 베트남은 본격적으로 캄보디아침공을 준비하였고, 행삼린과 치아심을 비롯한 하노이 크메르 루즈 세력과 20만명의 캄보디아 난민들을 포함한 반(反)폴포트세력들을 규합하여 소위 캄푸치아 민족해방민족연합전선(KNUFNS, Kampuchea National United Front for National Salvation)<sup>10)</sup>을 창건하였던 것이다. 이조직에는 남베트남으로 추방 당한 50만 이상의 캄보디아인들을 규합한 크메르 크롬(Khmer Krom)도 소속되어 있었다. 1978년 12월 베트남은 드디어 캄

푸치아 민족해방민족연합전선을 이용한 캄보디아 공격을 본격적으로 감행하였다.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베트남은 단 17일만에 폴팟정권을 몰아내고 1979년 1월 새로이 행삼린 정권의 캄푸치아인민공화국(PRK, People's Republic of Kampuchea)<sup>11)</sup>을 건설하는데 성공하였다. 베트남은 이를 폴팟정권에 대항하는 캄보디아인들에 의한 혁명이라고 주장하였고, 폴팟세력은 게릴라전을 펼치기 위해 캄보디아의 외각지대로 퇴각하게 되었다.

캄보디아의 행삼린 정권은 1979년 캄보디아와 소련과의 외교관계를 복원시켰고, 같은 해 2월 수상 팜반동(Pham Van Dong)과 육군참모총장 반티엔둥(Van Tien Dung)을 포함한 베트남대표단이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양국간의 평화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하였다(Leifer 1980: 34). 이 조약은 베트남군의 캄보디아 주둔을 정당화시키는데 이용되었고, 특히 국방과 건설협력을 강조하였다. 이리하여 인도차이나에는 베트남의 정치적 지배와 전략적 필요성이 충족되는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포함한 삼국간의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이에 비해 폴팟정권의 붕괴는 캄보디아의 주변국가들 중에서 중국에게 정치적·전략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가져다 주게 되었다. 중국의 소련팽창주의와 베트남에 대한 견제세력으로 역할 해 온 캄보디아의 정권변화는 중국측으로는 중대한 손실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1979년 2월 중국은 베트남군의 캄보디아점령에 대한 일종의 군사적 시위의 형태로 베트남에 대해 정면 공격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베트남은 캄보디아로부터 군사력을 철수시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베트남내의 중국계에 대한 추방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10) 캄푸치아 민족해방전선연합(Kampuchean United Front for National Salvation)은 베트남의 캄보디아침공에 대한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연막전술로서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음.

11) 베트남은 이에 앞서 행삼린 주도의 인민혁명위원회(People's Revolutionary Council)를 수립하였는데, 행삼린은 과거 폴팟정권 시기에 캄보디아공산당의 동부지역집행위원 겸 제4사단의 사령관이었으며 이후 폴팟 대항세력의 지도자로서 변신하여 베트남의 신임을 얻을 수 있었던 인물이었다.

펼쳤다. 이에 중국은 폴팟의 크메르 루즈세력에 대해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계속 군사 및 경제원조를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베트남의 라오스 등지에 대한 중국지원의 통로차단 노력으로 인해 곤경에 처하게 된 폴팟은 행삼린 정권의 반대세력들과 제휴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여기에는 온건파 시하누크세력과 과거 폴팟정권에 의해 태국국경지대 등으로 추방당했던 크메르 세레이(Khmer Serei) 등도 포함되었다.

캄보디아사태를 둘러싸고, 중국과 베트남은 모두 양국간의 갈등으로부터 막대한 손실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양국 국경선에서의 긴장관계는 지속되었고 1980년대에도 여러 차례에 걸친 심각한 충돌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베트남의 캄보디아침공 등의 군사적 방법을 통한 인도차이나에서의 정치·군사적 지배는 국제사회로부터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베트남이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던 제2차 5개년 계획(1976-1980)은 실질적으로 무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련과 동구권에 대한 군사·외교적 의존으로 인해 대다수의 제3세계국가들로부터 외면당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미국과 서방진영으로부터의 개발원조의 가능성도 희박해졌으며, ASEAN국가들로부터의 신뢰도도 점차 약화되었던 것이다. ASEAN국가들은 인도차이나에서의 공산주의의 승리와 소련과 베트남의 군사협력이라는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소련의 원조 하에 발생한 1978년의 베트남의 캄보디아침공은 ASEAN국가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ASEAN은 인도차이나의 갈등이 ASEAN국가들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 상당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고, 중·소 갈등 또한 지역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Choundhury 1981: 37-38).

베트남 중속의 캄보디아정권의 성격은 단순히 캄보디아와 베트남 공산주의의 대결이라는 측면을 넘어선 복잡한 국제적 관계의 의미를 내포하게 되었다. ASEAN과 미국은 중국과 소련 그리고 베트남의 인도차이나에 대한 공산체제 모니 구축화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다. 특히, ASEAN국가들은 캄보디아 영토로부터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를 주장하였고, 중국과 루마니아, 유고슬라비

아, 북한 등도 베트남의 인도차이나 헤게모니화에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결국 일본, 덴마크, 스웨덴, 영국까지도 베트남에 대한 원조중단을 고려하게 되었다(Donnel 1980: 21).

인도차이나에서 발발한 공산주의 세력들 간의 충돌에서 일시적이거나 유일하게 이익을 가졌던 국가는 소련이었다고 볼 수 있다. 소련은 베트남에 대한 군사적·경제적 지원의 대가로 캄란만(Cam Ranh Bay)을 군사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이 곳에서의 군사시설은 필리핀의 미국 해군기지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전략적 중요성은 대단히 높았다고 볼 수 있다. 소련의 경제원조는 베트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이는 또한 베트남이 세계4대 군사강국으로 성장하는 데도 중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베트남은 이를 보상하기 위해 군사적·정치적 협력 외에 천연자원과 노동력을 소련에 제공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제체제의 변화는 1986년 제6차 당대회에서 등장한 새로운 베트남지도부로 하여금 베트남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경제자유화정책, 중국과의 화해접근, 서방국들과의 긴밀한 경제협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캄보디아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는 노선이 베트남 개혁의 중심적인 당면목표로 설정되었다.

한편, 1981년부터 1984년까지의 초기 단계에서는 베트남에서 훈련받은 펜소반(Pen Sovan) 등이 새 캄보디아정권의 크메르인민혁명당(KPRP, Khmer People's Revolutionary Party)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으나, 1985년 이후부터는 행삼린과 훈센(Hun Sen)을 비롯한 구(舊)폴팟정부(DK) 출신으로서 정당의 경험이 없는 자들이 그 정당(KPRP)을 지배하게 되었다(Vickery 1986: 73-83).<sup>12)</sup> 표면적으로는 이들 두 집단들 간에 갈등이 존재하는 듯하나, 궁극적으

12) 당시 캄푸치아 인민공화국의 지도부는 크게 네 부류로 나눌 수 있다. 1954년부터 1970년까지 베트남에서 정치적·군사적 훈련을 받은 크메르 공산주의자들의 일부: 폴팟정부에서 주요 직책에 종사했던 자들; 1970년과 75년 사이 폴팟과 관계를 단절한 공산주의자들; 1979년 이전에 공산당에 가입한 경험이 없는 자들.

로는 장차 캄보디아가 베트남으로부터 완전한 자율성을 이룩하여야 된다는 입장에는 일치하고 있었다. 행삼린도 1978년 중반까지 베트남에 대한 의존을 반대하여 왔으나 결국 폴팟세력 등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캄보디아는 베트남의 정책과 노선의 영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되었고, 행삼린정부의 외무장관 및 실세였던 훈센은 이 과정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권력기반을 견고히 할 수 있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베트남의 지원과 고문단의 수는 절대적으로 감소하여 캄보디아의 독자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정권의 취약성으로 인해 여전히 베트남에 의존하는 경향이 상당히 있어 왔다. 캄보디아정부의 실질적인 독립은 베트남군의 캄보디아주둔 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어 왔는데, 이는 결국 1985년에서야 1990년까지 베트남군의 캄보디아로부터의 철수를 약속으로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Porter 1988: 28).

그리고 행삼린정권의 출범 이후, 다양한 반정부 조직들은 화해와 협력의 제스처를 취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중국지원의 크메르 루즈, 시하누크의 왕권세력, 그리고 전(前)총리 손산(Son San)이 이끄는 크메르민족의 민족해방군 등이 포함되었다. 크메르 루즈에 의한 반정부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캄보디아의 민주화는 1980년대 말까지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나, 소위 자카르타 비공식회의(JIM, Jakarta Informal Meeting)를 비롯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캄보디아의 파벌세력들과 행삼린정권 그리고 베트남정부의 회동이 추진되었고, 이에 행삼린정부는 시하누크에게 국가재건회의 의장직을 제의하여 화합의 실마리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결국, 1989년과 1990년에 걸쳐 베트남군이 완전철수함에 따라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 회원국들은 각 파벌들의 군사조직 해체와 총선실시를 위한 유엔감독하의 과도정부 설치를 제안하게 되었다(Freedom House Survey Team 1993: 155-156). 이와 같이 주변국가들의 개입과 이해관계 속에서 캄보디아의 민주화과정은 또 다른 형태의 외세개입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 IV. 캄보디아 민주화의 국내적 이행과 구조

캄보디아 민주화의 시작은 유엔과 국제세력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해서 실현되어질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 과정과 구조 그리고 현재 캄보디아정권의 권력관계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캄보디아의 지배정당 크메르인민혁명당은 사회주의노선을 포기하고 다당제와 시장경제를 수용하는 민주주의체제를 수용하기로 발표하고 정당명도 캄보디아국민당(CPP, Cambodian People's Party)으로 변경하였다. 1991년 10월 23일 국제사회의 중재에 의해 파리에서 시하누크국왕, 손산, 키우삼판, 훈센 그리고 18개국 대표들이 모여 평화협정에 조인하고, 잠정적으로 국가의 주요 정책을 관장할 수 있는 유엔과도정부(UNTAC, U.N. Transitional Authority in Cambodia) 그리고 캄보디아의 주요 4개의 파벌들을 대표하는 소위 국가최고평의회(SNC, Supreme National Council)를 설치하여 시하누크국왕을 상징적 대표자로 옹립하는 일련의 민주화 이행을 위한 평화정착의 초석을 마련하였던 것이다(Freedom House Survey Team 1993: 156).

유엔과도정부의 주요임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휴전체제의 감시감독; 둘째, 각 파벌들의 해체와 무장해제; 셋째, 중립적인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각 정당들에 대한 통제; 넷째, 인권상황의 개선; 다섯째, 캄보디아 난민들의 정착문제 해결; 여섯째, 무절제한 광산개발의 제한; 일곱째, 자유롭고 공정한 총선진행 등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요목적들을 수행하기 위해 유엔과도정부는 두 단계의 과정을 설정하였는데, 첫 번째 단계는 각 파벌들 간의 완전한 휴전성립과 외국군의 완전철수, 두 번째 단계는 유엔 통제하의 30% 수준의 군사력을 제외한 각 파벌들의 무장병력들의 해체와 조정이었다(Frost 1994: 80).

그러나 크메르 루즈는 베트남인들의 캄보디아정착과 훈센의 캄보디아 정부에게 유리한 정치적 상황들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민주화 과정에 대한 협력을 거부하였다. 1993년 총선 이전 크메르 루즈는 캄보디아민족통일정당(National

Unity of Cambodia Party)을 결성하여 민주화과정에 참여의사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유엔평화유지군과 베트남민족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는 등의 비협조적 태도를 견지하였다. 유엔은 크메르 루즈 점령지역에 대한 경제제재조치를 취하였고 결국 크메르 루즈는 민주총선을 거부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내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시하누크는 평화정착과정을 통한 민주화 작업을 계속 진행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훈센을 비롯한 다른 파벌들도 이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였다. 그래서 유엔이 제시한 1993년 5월 23-27일 캄보디아 역사상 최초의 민주적 선거가 치루어졌던 것이다.

〈표 1〉 캄보디아의 1993년 총선: 주요 참여정당들과 그 결과

주요 정당과 그 노선	득표율 (%)	의석수 (120)
FUNCINPEC (United National Front for an Independent, Neutral, Peaceful and Cooperative Cambodia: 왕권주의)	45.4	58
CPP (Cambodian People's Party: 사회주의) 또는 KPK	38.2	51
BLDP (Buddhist Liberal Democratic Party: 자유주의)	3.8	10
Moulinaka (National Liberation Movement of Cambodia: 중도주의)	1.4	1
기타 군소정당들	11.2	0

출처: [http://www.agora.stm.it/elections/election/cambodia.htm\(00/09/11\)](http://www.agora.stm.it/elections/election/cambodia.htm(00/09/11)).

위의 〈표 1〉에서 나타나듯이, 비례대표제에 의한 5년 임기의 총 120석의 캄보디아국회를 위한 총선에서는 어느 정당도 절대의석을 차지하지는 못하였다. 왕권주의의 FUNCINPEC이 45.4%로 58석을, 사회주의자들의 CPP는 38.2%로 51석을, 자유주의 정당인 BLDP는 3.8%로 10석을, Moulinaka가 1석을 차지하였고, 기타 16개 군소정당들은 의석을 획득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Frost 1994: 85).

총선을 통해서 라나리드의 왕권파 FUNCINPEC은 최대의 정당으로 발돋움하였으나, 군부와 행정관료들은 여전히 훈센의 CPP의 영향력 하에 통제되고 있었다. 그래서 정국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두 정당들 간의 상호협력적 연



립정권의 구성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FUNCINPEC의 지도자 라나리드와 미국의 반대가 있었지만, 시하누크를 국왕으로 하는 캄보디아 임시민족정부(PNGC, Provisional National Government of Cambodia)가 성립되고 실질적으로 정부를 책임지게 되는 라나리드와 훈센을 공동의장으로 정부체제를 편성하였다. 동시에 두 의장은 국방, 내무, 공안장관직을 겸직하였다. 두 의장들 간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임시정부체제는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리하여 결국 새로운 캄보디아왕국(Kingdom of Cambodia)이 국회에 의해 인준되었고, 두 의장들은 각각 제1총리, 제2총리에 임명되었으며, 각 부서는 양당의 상호공조체제로 운영되었다. 예를 들면, 캄보디아의 20개의 주는 각각 FUNCINPEC과 CPP가 10개 주씩 주지사직을 임명하였고 부주지사직은 각각 두 사람씩 각 당에서 총원되었다. 내각에서도 CPP가 16개, FUNCINPEC이 13개, BLDP가 3개 그리고 Moulinaka가 1개의 부서를 담당하게 되었다. 국왕은 또한 국회의장, 총리, 불교계 최고지도자들, 국회 제1·2부의장으로 구성되는 소위 국왕선출위원회(Royal Council of the Throne)에서 선출되게 하였다. 그러나 <표 2>의 최근에 실시된 총선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는 훈센의 단일총리체제 구축에 성공한 CPP가 실질적으로는 캄보디아 정부구조의 여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실정이다(Frost 1994: 85-88). 특히, 외교·국제협력부와 경제·재정부와 같은 정부 주요 업무는 CPP가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http://www.cia.gov/cia/publications/chiefs/chiefs31>).

<표 2> 캄보디아의 1998년 총선: 주요 참여정당들과 그 결과

주요 정당과 그 노선	득표율 (%)	의석수 (122)
FUNCINPEC (United National Front for an Independent, Neutral, Peaceful and Cooperative Cambodia: 왕권주의)	31.7	43
CPP (Cambodian People's Party: 사회주의) 또는 KPK	41.4	64
Pak Sam Rainsy (Sam Rainsy Party: 민주주의)	14.1	15
기타 군소정당들	12.8	0

출처: [http://www.agora.stm.it/elections/election/cambodia.htm\(02/11/02\)](http://www.agora.stm.it/elections/election/cambodia.htm(02/11/02)).

html,03/04/21).

최초의 민주총선 이후, 라나리드측(FUNCINPEC)과 훈센측(CPP) 간의 공조 체제는 한시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상호간에는 중대한 갈등요소가 존재하여 왔다. 이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크메르 루즈에 관한 상호 이질적 접근방법이다. 훈센은 선거캠페인 과정에서 라나리드측의 크메르 루즈에 대한 비협조적 자세를 계속 비난하였다. 라나리드와 훈센 양측 모두 세력확대를 위해 크메르 루즈를 포용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지만, 새 정권의 탄생 이후 라나리드보다는 前크메르 루즈 간부출신인 훈센이 총선 이후 심각한 내분을 겪고 있는 크메르 루즈를 전향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유화적 정책에 더욱 깊은 관심을 표명하여 왔다(*Newsweek* 96/08/26, p.20; *Time* 96/09/30, p.24; *Time* 96/08/26, p.12-14). 훈센은 특히 온건파 크메르 루즈에 대해 정부고위직과 무장해제에 대한 안정적 대책을 제시하여 왔던 것이다.<sup>13)</sup> 그러나 크메르 루즈의 강경파는 CPP의 친베트남정책과 CPP 주도의 크메르 루즈 거점지역인 안롱벵(Anlong Veng)등에 대한 지속적 공격, 그리고 CPP 중심의 정부구조에 대한 비균형적 지배력 등의 이유로 훈센측에 대해 계속 적대감을 고수하였다.

둘째, 권력구조에 대한 대립적 입장차이다. FUNCINPEC은 실질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의 제도적 장악을 추구하여 왔다. 라나리드측은 아직까지 시하누크의 영향력과 국민들로부터의 지지가 자신들에게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권력을 최대한 확대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훈센측은 현재 지속되고 있는 그들에게 유리한 권력구조를 계속 유지하여 2003년 총선에서의 성공적인 결과와 국내외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FEER* 96/07/04: pp. 24-25). 훈센은 이러한 체제를 통

13) 최근 훈센의 CPP는 크메르 루즈의 일부 온건파들을 수용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시도하였다. 훈센은 크메르 루즈의 거점지역들인 파이린(Pailin)과 프놈 말라이(Phnom Malai)에서 前크메르 루즈 지도자들이었던 에이 키엔(Ei Chhien)과 속 펠(Sok Pheap) 등이 그들의 군사조직과 함께 캄보디아정부군(Royal Cambodian Army)의 고위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인정을 주고 있다(*Far Eastern Economic Review* 96/08/22; *FEER* 96/09/19, p.20).

해서만 크메르 루즈의 영향력은 물론 라나리드측을 적절히 견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sup>14)</sup>

셋째, 크메르 루즈 문제를 비롯한 국내정치에 대한 외세의 개입이다. 훈센 측의 크메르 루즈에 대한 유화적 입장은 상호간의 현실적 필요성이라는 측면이 있지만, 크메르 루즈를 포함한 국내세력의 정치적 화합에 대해 외세의 강경한 반발과 간섭이 존재한다. 특히 군사원조와 경제원조를 빌미로 호주, 프랑스, 미국등의 외세들은 훈센의 캄보디아정권에 상당한 압력을 가하면서 크메르 루즈의 수용을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국제적으로도 크메르 루즈의 잔학성과 부도덕성을 캠페인화하여 그들의 캄보디아 국내문제에 대한 간섭을 정당화시키고 있다([http://www.state.gov/www/policy\\_remarks/1999/990309\\_boyce\\_cambodia.htm](http://www.state.gov/www/policy_remarks/1999/990309_boyce_cambodia.htm), 99/05/31). 그러나 이는 궁극적으로 캄보디아의 자율적인 민주화를 방해하고 국내세력들 간의 갈등을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을 암시하여 주는 것이다.

## V. 결론: 요약과 전망

캄보디아는 1993년 유엔의 감시감독 하에 역사상 최초의 자유총선거라는 민주화의 진입단계를 거쳐 1998년 두 번째의 절차를 경험한 바 있다. 식민지배의 영향과 지정학적으로 주변국과 외세의 개입에 취약한 환경으로 인하여 캄보디아는 다양한 파벌들이 형성되었고, 캄보디아의 민주화는 이러한 국내세력과 국제세력의 상호 연계적인 특수한 성격을 띠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훈센의 캄보디아정권은 민주화를 위한 국내외적인 압력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는 캄보디아 민주화의 연약성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14) 최근의 라나리드와 훈센 간의 권력구조에 대한 경쟁에 관해서는 *The Economist* 97/04/26, p.29; *FEER* 97/05/08, p. 20; *FEER* 97/05/22, pp.20-21을 참조.

캄보디아 민주화의 미래는 국내적으로는 권력구조의 안정성과 대외적으로 동남아국가들을 비롯한 주변국가들과의 긴밀한 협조체제에 달려 있다고 본다. 캄보디아의 민주화는 국내파벌들의 자발적 결합이라기보다는 국제사회의 개입과 압력에 의해 이루어진 외생적 결과의 측면이 더욱 강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캄보디아는 1993년 민주선거 이후 민주주의 실현의 위기, 안보의 취약성 그리고 인권탄압 등 많은 문제점들을 나타내 보이고 있으며, 또한 과거의 비극적 역사의 해결을 둘러싼 국내외의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 즉, 10여년 간의 캄보디아 민주정권의 경험은 다양한 문제점들과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연합정권의 불협화음, 정부부문과 군사부문에서의 팽창적 구조, 정치·경제·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부족, 거시적·미시적 경제구조의 취약성, 하부구조의 미비, 그리고 산업화에 필요한 인력 및 재장난 등의 캄보디아 국가사회의 전반적 측면에서의 문제점들을 총체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캄보디아의 민주화는 아직 미완의 불안정한 단계에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잠정적인 경제적 통계는 캄보디아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1993년 새로운 민주정권의 등장 이후 평균 6%에 가까운 경제성장률, 1인당 GDP가 300달러를 상회하는 생산량, 전통적인 농업중심 구조의 감소와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증가 등이 이러한 예측을 적절히 반영해 주고 있다. 또한 인플레이션과 화폐 리엘(Riel)도 상대적인 안정성을 보이고 있으며, 예산배정에 있어서도 국방 및 안보 부문보다는 교육, 보건, 농업 부문의 개선에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성장은 새 정권으로 하여금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장기적 목표달성에 큰 자신감을 가지도록 하는 주요한 경험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캄보디아는

---

15) 캄보디아는 라오스와 미얀마(버마)와 함께 1997년 7월 ASEAN 정식회원국으로 가입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최근 제2총리 훈 센에 의한 제1총리 라나리드 출몰 쿠데타사태로 야기된 국내의 사정으로 인해 라오스와 미얀마만이 정식으로 가입되고 캄보디아는 그 가입이 일시적으로 유보된 바 있다.

ASEAN에 대한 정식회원가입을 성취<sup>15)</sup>해 왔고, ASEAN의 협력과 단결이 이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보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훈센정권은 ASEAN가입을 통해서 국내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 체계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경주할 필요가 있다.

크메르 루즈 문제도, 국제사회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기 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유화적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에 대한 사면 또는 물질적 지원을 통해서 캄보디아인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 이들을 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추진하여 왔던 모델들을 이용해서 사적부문을 강화하고 농업, 경공업, 서비스업에 기초한 수출주도형 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인력의 질적 수준을 증대시키고 외국투자자들의 자본유치를 위해 치밀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캄보디아는 행정개혁, 법률정비, 경제환경의 확립, 그리고 무엇보다도 각 파벌들의 화합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는 곧 미완의 캄보디아 민주화 그리고 안정적 경제개방을 위한 견고한 초석이 될 것이다.

**주제어: 캄보디아, 민주화, 국내세력, 국제세력, 정치적 파벌**

#### 참고문헌

- Barron, John and Paul, Anthony. 1977. *Murder of a Gentle Land: The Untold Story of Communist Genocide in Cambodia*. New York: Reader's Digest Press.
- Choundhury, G.W. 1981. "Asian and Communist World." *ASIA PACIFIC COMMUNITY* (Summer).

- Diamond, Larry, Linz, Juan J, and Lipset, Seymour Martin. 1990. *Politics in Developing Countries: Comparing Experiences with Democracy*. Boulder and London: Lynne Rienner Publishers.
- Donnel, John C. 1980. "Vietnam 1979: Year of Calamity." *Asian Survey* 20(1).
- Freedom House Survey Team. 1993. *Freedom in the World*. New York: Freedom House.
- Frost, Frank. 1994. "Cambodia: From UNTAC to Royal Government." *Southeast Asian Affairs 1994*.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Huntington, Samuel P. 1991.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Norman and Londo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 Kroef, Justus M. 1979. "The Cambodian-Vietnamese War: Some Original and Implications." *Asian Quarterly* 2: 83-94.
- Leifer, Michael. 1980. "Kampuchea 1979: From Dry Season to Dry Season." *Asian Survey* 20(1).
- Porter, Gareth. 1988. "Toward a Kampuchean Peace Settlement: History and Dynamics of Sihanouk's Negotiations." *Southeast Asian Affairs 1988*.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Research Institute for Peace and Security. 1979. *Asian Security*. Tokyo: Nikkei Business Publishing Co., Ltd.
- SarDesai, D.R. 1989. *Southeast Asia: Past & Present*. Boulder: Westview Press.
- Shawcross, William. 1979. *Sideshow: Kissinger, Nixon and the Destruction of Cambodia*.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Than, Sina. 1991. "Cambodia 1990: Towards a Peaceful Solution?" *Southeast Asia Affairs 1991*.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Vickery, Michael. 1986. *Kampuchea: Politics, Economics and Society*. Boulder: Lynne Rienner.
- . 1984. *Cambodia, 1975-1982*. Boston: South End Press.

<http://www.agora.stm.it/elections/election/cambodia.htm> (00/09/11, 02/11/02).

<http://www.cia.gov/cia/publications/chiefs/chiefs31.html> (03/04/21).

[http://www.state.gov/www/policy\\_remarks/1999/990309\\_boyce\\_cambodia.htm](http://www.state.gov/www/policy_remarks/1999/990309_boyce_cambodia.htm) (99/05/31).

*Far Eastern Economic Review* 97/05/08, 97/05/22, 96/09/19, 96/08/22, 96/07/04.

*Newsweek* 96/08/26.

*Time* 96/09/30, 96/08/26.

Abstract

## **Political Factions and Democratization in Cambodia**

Sungkwan Park  
(Kyungnam University)

This paper analyzes the political democratization in Cambodia, focusing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aspects. In Cambodia, domestically, democratization denotes a system of government since 1993 that meets conditions of competition, political participation, and civil and political liberties among the various factions including King Sihanouk, Hun Sen, Khmer Rouge and other nationalist groups. Democratization in Cambodia, however, exists in an environment that contains other countries. By their actions foreign countries have massively affected the chances for Cambodian democracy: the United States, France, China, Russia, Japan, Vietnam. In a nation with turbulent past so new to the democratic experience and so lacking in basic institutional development and human resources, the road to full democratic development will be a long one.

**Key words: Cambodia, democratization, political factions, foreign countries**